

## 제 189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전후 일본의 중국 연구에 있어서 다케우치 요시미의 사상적 위치

강연자: 이시이 도모아키 (石井知章) (일본 메이지대학 상학부 교수)

일본 와세다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도 통신사, ILO (국제노동기구)를 거쳐 현재 메이지대학 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시이 도모아키 선생의 '전후 일본의 중국 연구에 있어서 다케우치 요시미의 사상적 위치' 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10 월 21 일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이시이 선생에 따르면 다케우치 요시미의 담론이라는 것은 현실의 중국사회와는 조금 동떨어진 일종의 '관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케우치의 저서를 읽고 있노라면 중국의 지식인은 모두가 마치 루쉰과 같이 강인한 자아를 확립한, 즉 아시아에 있어서 유일한 '근대인'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중국사회의 현실은 다케우치 요시미보다도 오히려 류샤오보(노벨평화상수상 작가) 등 자유주의派 지식인에 의해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성(특히 전통적 봉건전제주의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케우치의 담론에는 '서구적 문화 가치를 다시 한 번 동양에 의해 되감싸서, 반대로 서양 스스로가 아시아로부터 변혁한다'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다 높이는 적극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다케우치 요시미에 대한 재고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시이 선생은 밝혔다.

다케우치 요시미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실제로 적고, 말하고, 남긴 것이 아니라 문화대혁명 이후 그를 침묵하게 만든 것으로부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시이 선생이 느낀 현실과 이론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이라는 것은 다케우치의 담론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전후 일본의 진보적 중국연구자 및 지식인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왜곡된 중국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여기서의 문제점은 중국이 방법(수단)으로서 쓰이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전전) 중국을 형상화하면서 현재(당시) 중국이 논해지고 마는, 게다가 결국에는 현대 일본의 '근대'를 비판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고, 그를 위한 수단으로 잘못된 중국인식이 사용되고만 것에 있다. 따라서 중국인식에 근본적인 착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용한 일본비판 그 자체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케우치는 문화대혁명에 마주하여 자신의 중국인식에 근본적 모순이 있음을 깨닫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것이 절필로 이어졌을 것으로 이시이 선생은 보았다.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다케우치의 계승자 중에서도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인물 중 하나인 미즈오구치는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강하게 의식하고 쓴 '방법으로서의 중국'에서 인식에 있어서의 '방법', '목적'을 논하였으며,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는 것은 독립적 중국을 수단으로 유럽,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국을 중국에 입각하여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의 일원성에 환원하지 않을 수 없는 독자적 중국을 인식함으로써 세계 그 자체의 다원적 구성을 명백히 하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세계인식인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전근대적 부정적 측면을 결코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성이 철저히 중성화되면서도 은폐되어 있는 것이 미즈오구치의 주장이며, 이는 다케우치의 인식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

왕후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신좌파는 모택동주의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그들이 포스트 모던을 주장함에 있어 모택동의 사상을 사용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에 의한 근대의 초극에 있어서 이 독자적인 非서양형 근대성의 추구가 가장 유효하게 작동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근대성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대혁명이라는 재평가가 신좌파의 중요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그것은 '脫정치화'라는 가치중립성으로 가장하여 대외적으로는 점점 더 패권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억압적으로 변해가는 현대 중국의 일당독재정치를 극히 교묘하게 박편으로 쓴 '超정치화'의 과정 그 자체였으며 이러한 사상 도착 상황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위화감을 한층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시이 선생은 설명했다.

이와 같이 중국 국내의 담론 공간과 일본의 진보적 좌파에 의한 그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 역시 '제국의 구성'이라는 저서에서 중국에 필요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 고유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제국을 재건축하는 것, 다시 말해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구적 사상으로 중국 독자적인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샤오보(노벨평화상수상 작가)에 대한 비판에서도 사용되는 이론으로 이노우에 다츠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특수 서구적 가치로 보는 담론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을 비판하려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서구중심주의적인 '知的 패권'에 이미 편입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다케우치의 담론을 그저 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오히려 사실로서의 중국을 연구하기 위한 개념장치로서, 과연 정말로 유효한지를 묻는 것이 이시이 선생이 말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일본에서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고야스 노부쿠니에 의한 다케우치론일 것이다. 고야스에 의하면, 가라타니 등의 사상적 도착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후 일본에 있어서 중국학의 권위와 권력의 중심적 지위를 쌓은 미즈오구치에 의한 다케우치 요시미에 대한 결정적 오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 대항하여 실제적인 아시아를 생각한 것이 미즈오구치였다면, 본디 다케우치가 주장한 바는 유럽과 아시아라는 20 세기가 가진 정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근대'라는 관계성 안에서 아시아를 생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다케우치 요시미의 담론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일 것이리라고 설명하며 이시이 선생은 강연을 마무리 했다.

## 질의응답

1. 저의 경우 서양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유교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유교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가라타니 고진과 같은 리베라르파 현대 일본 사상가가 왜 중국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인지요.

→ 기본적으로는 신좌파라고 불리우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모택동의 신화성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신좌파 지식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사상적 빈틈을 메우는 관점에서 가라타니 고진과 같은 자유주의파를 소개한 것입니다. 유교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 쓰면 다 삭제되기 때문에 유교문제와 보편적 가치를 잘 엮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유교문제를 자유주의적으로 풀어낸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종교=보수 라는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라는 담론을 일본과 중국의 관계성안에서 파악하고 계시는데, 조선반도라는 담론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저는 중국과 일본 중심의 연구자입니다만 동아시아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로서 조선반도를 사상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 역시 아주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프랑크푸르트학파 1 세대인 카를 비트포겔의 담론에 대해 '동양적 전제주의' 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동아시아 전체를 중국을 중심으로 이해할 적에 중심, 아중심, 주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국의 질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이라 함은 줄곧 영향을 받아왔다는 주장입니다. 즉, 민주화된 새로운 조선의 정치라는 것이 아쉽게도 전후에는 조선반도가 나뉘어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 것인데, 그 질서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전제적 질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선반도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북한의 경우 1930 년에 자본주의가 들어서기 전 봉건주의와도 같은 아시아적 질서가 남아서 1948 년 이후에도 유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자본주의 및 민주화의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감상)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상하이에서 다케우치 요시미의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는 서양에 대립하는 존재로서 아시아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등의 가치가 동양에 들어오면서 폭력적으로 변해서 서양의 가치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보편적 가치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욕망이 계속 있어왔는데 왜 그런 극복 욕망이 생겨났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로 그러한 욕망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지요.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담론의 내용을 깊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선생님께서는 중국의 신좌파도 그렇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쓰셨는데 한국에서는 신좌파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논해지고 있지 않는데요. 중국의 자유주의학파에 있어서 어떤 사상적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지요?

→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에 대한 왕치산의 의견에 대해 저는 보편적인 가치는 이미 중국에 존재하므로 최종적으로 그것을 외부로부터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어떻게 확대하여 중국에 뿌리내리게 할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치산과 리커창이 자유주의파 중에서도 중간에 균형을 잡고 있는 학자이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대중감정이라는 것은 천안문 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시미가 문화대혁명으로 충격을 받고 집필을 그만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천안문사건까지의 일련의 사건에 일본의 대중감정을 좌우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일중 국교정상화라는 것은 문화대혁명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저의 경우 1980 년 초에 중국에 유학하였는데, 딱 그때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근대화에 들어간 상태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혁명이 일어나고, 93 년부터 고도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경제협력을 해가면서 (중국이 커가면서) 일본 기업도 많은 이익을 얻었기에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죠. 대중감정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천안문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 2005 년에 일어난 반일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에 두었던 공장들도 타이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등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죠. (중국이랑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국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신좌파의 경우 그 영향력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